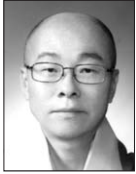


일주 문



백중회향 경로잔치 개최
대구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은 8월 14일 공산초등학교에서 대구불교복지회 요양원 및 지역 경로당 어르신 1000여명을 모시고 백중회향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법흥사 문화마당
도안 스님(법흥사 주지)은 8월 7일 법흥사 앞마당에서 아리술 문화예술단을 초청해 어울림 문화마당을 개최했다.



나눔의 집 위안부기념관 10주년행사
원형 스님(나눔의집 원장)은 8월 14일부터 2008년 말까지 광복 63주년 및 위안부기념관 10주년 기념사진전을 개최한다.



나라사랑·독도사랑 글짓기대회
동국대 경영교 총장은 8월 10일 '제2회 나라사랑, 독도사랑 전국 초·중·고교생 글짓기 대회'를 개최했다.



지혜로운여성 다문화교육
(사)지혜로운여성 김인숙 이사장은 9월 2일~10월 17일 조계사 교육관 2층 강 의실에서 다문화가정 지원 전문봉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전원주씨, 지구촌공생회 홍보대사 위촉
불자 밸런스 전원주씨는 8월 6일 지구촌공생회(대표 월주)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건불사 제조작업 중 사고로 실명

송영철 거사, 예초기 사용중 파편에

여름철 산중의 제조작업 시 예초기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8월 1일 한양 지리산 건불사(주지 보덕)에서는 신도 송영철(52) 거사가 예초기 사용중 파편으로 인해 왼쪽 눈을 실명하는 큰 사고가 있었다. 현재 대전 건양병원에서 치료중인 송씨는 평소 어려운 살림에도 건불사의 주변도량과 마을을 내 집처럼 청소하며, 말없이 선행을 짓던 터라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해철 충청지사장

“대중화합, 수행·교육에 최선 다할 터”

신임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 ‘인재불사’ 다짐

“더 이상 종교편향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재불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8월 1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신임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최근 종교편향으로 인한 종단의 어려움은 인재의 부재에서 기인했다”며 “늦었지만 분사 차원의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월 16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현승 스님에 이어 해인총림 방장 법전 스님(조계종 종정)으로부터 새 해인사 주지로 추천된 선각 스님은 “4년 내내 어미땀이 얼을 품은 심정으로 성심성의껏 해인사 주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각 스님은 “해인사는 절 살림도 크고 대중도 많아서 주지가 긴장해야 하는 자리”라며 “절에서 평상시 살면서 생각했던 개선방안을 원 없이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문중간에 접음이나 균열이 일지 않도록 대중화합에 힘쓰고 ▲수행·교육

도량인 해인사에 걸맞게 교육불사를 추진하며 ▲지역민과 이웃 포교에 소홀한 점을 개선시켜 소통시키는 포교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 정책에 대한 원인을 소극적 인재불사의 결과라고 지적한 스님은 “100년 전부터 해왔어야 할 불교계 인재육성을, 지금부터라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정부의 불교차별과 같은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 산청 출신으로 1959년생인 선각 스님은 1984년 해인사에서 해인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94년 법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해인사 선원장, 해인사 자비원 대표이사, 해인사 고불암 주지, 제12~14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조계종 종정 예경실장을 겸임하고 있다.

김성우 기자



파라미터 한·일 청소년불교교류대회 개최



파라미터청소년협회(회장 도후)는 7월 30일~8월 4일 일본 큐슈지역에서 아시아불교도협회(이사장 이바라기)와 한·일 청소년불교교류대회를 개최했다.

진각종, 자성동이 풋살대회



대한불교 진각종과 (사)비로자나협회는 8월 13~14일 경주 워터데에서 제3회 통리원경매 자성동이 풋살대회를 개최했다.

“불교정신으로 세계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

만해대상 평화부문 수상자 로카미트라 법사

“불교정신으로 창조적이면서 비폭력적인 인권운동을 할 것입니다”

제12회 만해죽전 평화부문 대상을 수상한 TBMSG대표 로카미트라 법사(61·본명: 제레미 구디)는 8월 13일 만해 NGO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해대상 수상은 인도 불가촉천민 상황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인도인권운동을 알릴 기회로 생각돼 매우 영광스럽다”고 밝혔다.

하는 불가촉천민들이 있다. 이들은 일반인들과 접촉할 수도 교육을 받을 수도 없는 신분으로 심지어 법적 보호와 사람 대접조차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주로 민주 정권이 아닌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어 종교, 특히 불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2003년 임진각 등 비무장지대를 방문했을 때 강 이쪽은 평화적 분위기가, 강 저쪽은 강압적인 분위기가 흐르는 것에 놀랐다. 북한인권상황을 비롯해 중국·티베트 인권 문제 등 세계인권문제에 불자들이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노덕현 기자

진각종립 위덕대
배도순 4대총장 선임

“개혁보다는 개선과 조정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감하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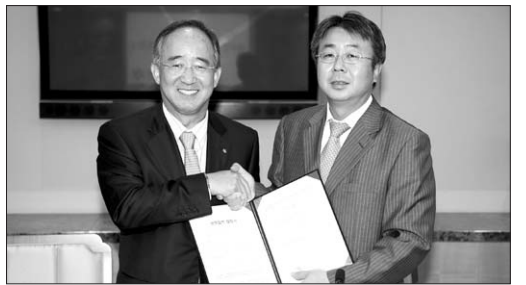
진각종 위덕대학교 제4대 총장에 선임돼 8월 1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배도순(55) 총장은 “종립학교로서의 설립취지를 존중하고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지역과 국가에 필요한 참인재를 육성, 명문사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응징정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총장은 이어 “대학의 우선과제인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우수 교수 및 학생 유치를 위해 전 학교 구성원이 일심단결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10년 내에 건실한 명문사학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싶다” 덧붙였다.

배 총장은 1972년 경북고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원 무역학과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강릉대 무역학과 교수와 위덕대 사무처장, 경영대학원장 겸 도서관장, 교육대학원장, 총장직무대행을 역임했다.

김성우 기자

東大, 조인스닷컴과 산학협력 조인식



동국대(총장 오영교)와 중앙일보 조인스닷컴(대표이사 하지윤)이 산학협력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산학협력 협정으로 동국대와 조인스닷컴은 산학협력을 위한 인력, 시설, 정보의 공동활용과 인력인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산학협력 사업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한·버마 문학교류의 밤



‘버마를 사랑하는 작가들의 모임’(회장 임동학 시인)은 8월 8일 ‘8888버마 민주화쟁 20주년’을 기념해 버마저항시인 마웅 소영(59)을 초청, 오후 6시 마포 이원문화원에서 한·버마 문학교류의 밤을 개최했다.

樂山 志安 講伯 傳燈講脈 傳授法會

대한불교조계종 종립 은해사 승가대학원에서 수학(修學)한 저희 전강제자들이 요산(樂山) 지안(志安) 큰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전수하는 전강식(傳講式)을 갖습니다. 전강(傳講)이라 함은 말 그대로 ‘강맥(講脈)을 전한다’는 뜻으로 전강식은 불교의 삼장을 터득한 후학에게 교맥(教脈)을 전하는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입니다.

전강제자 약력

청 원(靑願)

불국사에서 천호(千湖) 월서(月棲)스님을 은사로 득도. 해인사 강원, 중앙승가대학 졸업. 동국대학교 선학과 석·박사 과정 이수. 조계종립 승가대학원 졸업. 현재 동국대 선학과 강사. 논문으로 「간화선 연구」와 역서로 「황벽어록」이 있다.

도 산(道山)

법어사에서 여산(如山) 정여(正如) 스님을 은사로 득도. 법주사 강원, 해인사 율원 졸업. 조계종립 승가대학원 졸업. 현재 송광사 강원 강사. 역서로는 「대승기신론의기」가 있다.

인 해(仁海)

통도사에서 요산(樂山) 지안(志安) 스님을 은사로 득도. 해인사 강원 졸업. 동국대학교 선학과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동화사 강원 강사, 동국대학교 강사 역임. 조계종립 승가대학원 졸업. 현재 수덕사 강원 강사. 논문으로 「남종의 선사상 연구」와 역서로 달마대사의 「소실목문」이 있다.

◆ 일시 : 불기 2552년(2008) 8월 29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영축총림 통도사 반야암 ◆ 문의 : 055)382-3211

傳講 弟子 一同 합장